

황석영 광주 힐링사인회

# “상실감에 빠진 광주 시민 위로하고 싶었다”

지난 대선 이후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 특히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했던 호남의 절망감은 어느 지역보다 깊다. 1470만표는 단순한 표가 아니다. 더욱이 호남의 90%의 지지율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박탈과 소외를 드러내는 명확한 반증이다.

시대의 병리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게 작가라고 했는가. 그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간파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도 따끈따끈한 신작을 들고서,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적어도 힐링이라고 명명한 사인회에 값할 만큼 행사장엔 입주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 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어 온 것은 아닌 듯했다. 그보다 황 작가를 통해, 일명 ‘황구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달변인 그의 말을 듣고 한바탕 허허, 하고 웃고 싶어하는 듯 했다.

황석영 작가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 빛고을시민회관 행사장에서 사인회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여울물 소리’를 밤새 읽었던 터라 인터뷰 중간중간 ‘이신통’이라는 주인공이 황 작가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주인공 이신통이 황 작가의 이미지와 많이 겹쳐 보인다. 독자로서 소설을 읽는 내내 그 이유가 궁금했다.

▲주인공 이신통은 구한말과 갑오년 동학전쟁을 전후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처럼 매 순간순간이 위기일 만큼 변화의 진폭이 컸다. 정치, 사회,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었고 조선 왕조라는 전근대적 잔재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신통은 중인 계급출신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불락한 양반가의 서자였다. 오늘날로 치면 ‘무자’라고 할 수 있다. 벼슬에 나아갈 길은 막혀 있었고 그의 내면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우울이 가득했다. 나의 이미지가 겹쳐 있다는 것을 부인하



5일 만난 황석영 작가는 사인회를 개최한 계기에 대해 대선 이후 상실감에 빠진 호남을 위로하고 등단 50주년을 맞아 향후 문학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작 ‘여울물소리’는 시대의 부조리 까발리려 썼다

문학인생 50년... “내가 뽑은 경쟁자는 작가 이문구”

지 않았다. 여차피 소설가란 자신이 살아온 만큼의 이야기를 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울물 소리’를 이야기꾼의 일생이라는 시각에서 읽어도 무방하다.

–힐링 사인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힐링이라는 명칭을 붙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달라.

▲표면적으로는 대선 이후의 상실감에 대한 반작용에서 기인한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내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장

길산’은 남도의 정에 빚진 바 크다. 마감시간 압박해 원고를 날려준 사람들부터 맡음이 식당 밥값을 내주고 간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사인회를 개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문학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문학인생 5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되돌려 드릴 차례다. 자연스럽게 나의 만년에 이른 문학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를 성찰해야 할 시기다.

초기에는 단편과 중편을 썼다. ‘삼포로 가는 길’과 같은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다. 물론 ‘장길산’ ‘한씨연대기’같은 장편도 썼다. 중기에는, 잘 알다시피 방북을 전후로 한 장편 소설들 ‘오래된 정원’, ‘심청’, ‘바리데기’ 같은 작품이다. 이제 만년에는 초기에 썼던 서정적이면서도 모더니즘적인 소설을 쓰고 싶다. 당대 현실을 포착,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말이다.

–소설에는 주인공 이신통 외에도 서일수, 연옥, 백화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의 이름이 토속적일 뿐 아니라 중간중간 타령, 사설, 가사와 같은 짙은 문운이 등장한다.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인가.

▲우리말의 맛과 흥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다. 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이다. 문학사적으로 당대는 근대문학 이행기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내재하고 있었다.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호흡하고 싶었다.

–이야기꾼다운 발상이다. 황 작가는 스토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는 것 같다. 일테면 민담이나, 전설과 같은 구비 문학을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형상화하는 것 같다.

▲언급했다시피 이 소설에서 쓰고 싶었던 것은 이야기꾼의 이야기다. 나는 엄밀히 말하면 외방 이야기꾼이다. 토방 이야기꾼이 자신이 자란 동네에서 고목나무의 역사, 재가한 과부의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풀어내지만 외방 이야기꾼은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 다른 마을에 들어가 이야기를 쓴다.

나는 광주에 외방 이야기꾼으로 왔었다. 외지인의 시각으로 이곳의 이야기를 썼다. 토속성, 향토성을 찾기 위해 남도에 온 것이다. 문학적 코드로 말하면 노마드다. 유목, 방랑, 경계 이탈 같은 용어와도 유사할 것 같다.

–제목 ‘여울물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울물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던데.

▲이 소설의 배경은 동학농민전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기저에는 동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여울물 소리’는 그와 같은 연상선에서 봐 달라.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했다. 산사암자에 들어가 세상과 연을 끊으려 한 적도 있었다. 그때 낫자를 적시며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상실감에 빠져 있던 나를 위로해주었고 다시 설 힘을 주었다.

–황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이 있다. 단독작업으로 문했다. 누가 경쟁자인가?

▲(웃음) 항간에는 이문열이 경쟁자라고 하는데~ 내가 등단을 일찍 했다. 이문열, 이희수 내가 뽑았다. 굳이 경쟁자를 들라면 이문구를 뽑겠다. 그는 전형적인 외방 이야기꾼이니까.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열정-맨드라미’

서양화가 박동신 개인전  
오늘부터 전대병원갤러리



오만가지 흥색을 가진 꽃 ‘맨드라미’가 화폭을 가득 메웠다. 은은한 보름달이 맨드라미를 비추고 나비가 꽃향기에 춤을 춘다.

영암 시골집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맨드라미를 20여년 동안 화폭에 옮기고 있는 서양화가 박동신씨가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대병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열정-맨드라미’라는 주제로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화폭을 가득 메운 맨드라미의 탐스러운 꽃봉오리와 보름달 그리고 나비가 만들어내는 변주(變奏)를 담고 있다.

박씨는 ‘제4회 광주미술상(1998년)’, ‘제3회 대동미술상(2008년)’을 수상했으며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 광주미술상 운영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0-509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헤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인기도서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은 헤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나타났다. 종합 분야 2위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차지했다.

문학 분야에선 정은결의 ‘해물 품은 달’(3위), 박범신의 ‘은교’(4위) 등이 인기를 누렸다.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슈투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생활·과학분야에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1위에 올랐다.

이밖에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이야기’,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케이트 켈드웰의 ‘포드폴리오 이렇게 만든다’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 사인회 참석한故 윤상원 열사 아버지 윤석동 응

## “임을 위한 행진곡’, 아들 위해 황작가가 노랫말 만들어”

“생전에 한 번 황 작가님을 볼까 했는데 이렇게 사인회장에서 보게 되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애국가 다음으로 대학가에서 많이 불리는 운동가가 될 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애창 노래가 되었어요.”

윤석동(86·광주시 임곡동·사진 왼쪽) 응은 삼기된 표정으로 황석영 작가의 손을 잡았다. 윤 응은 황 작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한 시간 여가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달려왔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황 작가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윤 응과 가볍게 포옹을 했다.

윤 응은 고(故) 윤상원 열사 부친이다. 아들 상원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진압군의 총에 사살당했다. 윤 응에게 아들 상원은



가슴에 묻은 민주주의의 꽃이었다. 그런 아들과 1979년 노동운동을 하다 파

로로 숨진 박기순 열사와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황 작가는 백기완의 시 ‘빛바나라’를 노랫말로 바꿨다.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연유다.

본보(1월4일자 2면)를 보고 사인회를 알게 됐다는 윤 응은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가라 생각했던 황 작가를 만나는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황 작가는 윤 응에게 따로 사인을 해주었다. 두 사람은 사인회와 지난 시절의 인연을 화제 삼아 담소를 나누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p><b>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b>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p>	<p><b>태백산 눈꽃</b>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p> <p><b>출발일</b>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p> <p><b>여행비</b> 성인 85,000원 어린이:75,000원</p> <p><b>여행코스</b> 태백산 눈꽃 축제 /트래킹/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p>	<p><b>정동진 일출</b> 추암썰매대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탑승기차여행</p> <p><b>출발일</b> 1월 25일(금) 22:00경 광주역 출발</p> <p><b>여행비</b> 성인 85,000원 어린이:75,000원</p> <p><b>여행코스</b>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p>	<p><b>대관령 눈꽃</b> 눈꽃 축제 기차여행</p> <p><b>출발일</b> 2월 1일(무박2일) 23:30경 광주역 출발</p> <p><b>여행비</b> 성인 85,000원 어린이:75,000원</p> <p><b>여행코스</b> 대관령에서 일출관망/알펜시아 스페셜 동계올림픽참관/대관령눈꽃축제장</p>
---	---	---	--

**소파 식탁 거실장 기획전 각 50조 한정!**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다음달 30일까지

06대리식 4인식탁 세트 190 → 95만원	월넛 안전유리 4인식탁 세트 190 → 95만원	4인 가능소파 방석 4개 니움 290 → 195만원	라운드 4인소파 290 → 195만원
--------------------------	----------------------------	------------------------------	----------------------

**홍스페이스** 이태리&모던가구 직수입 도소매 ☎1899-0240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